

『金匱要略心典』의 痙病조문에 대한 번역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 李仙蘭

略論『金匱要略心典』痙病條文

尙志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 李仙蘭

通過分析『金匱要略心典』痙病條文中尤在溼的註釋, 得出如下結論

1. 痙病的原因有二: 外因是太陽風寒重感寒濕; 內因是血氣陰陽的損傷, 但津液不足是其共通之處.
2. 痙病基本屬於表病, 出現沈脈是因感受濕邪所致.
3. 痙病, 出現強直是因感受風邪.
4. 剛痙有惡寒症狀, 但有可能認為表實證無惡寒症狀, 故將原文中的‘反’字直接引用過來說明.
5. ‘其脈如故’和‘暴腹脹大’是風邪去而濕邪殘存的時候出現的.
6. 痙病的陽明痙熱證可使用大承氣湯, 其並不是為了去除燥實, 而是為了下陽明痙熱, 故實際上使用大承氣湯的時候要小心謹慎.

關鍵詞: 痙病, 強直, 津液不足.

I. 서론

痙病은 項背強急, 四肢抽搐, 口噤 角弓反張 등이 주증이 되는 일종의 병증이다.¹⁾ 痙病에 대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문헌은 『內經』이다. 『靈樞·熱病』에서는 “熱而痙者, 死. 腰折, 痙瘓, 齒噤齟也.”²⁾라 하였고, 또 “風痙身反折, 先取足太陽及膕中及血絡出血. 中有寒, 取三里.”³⁾라 하였으며, 『素

問·至真要大論』에서는 “厥陰在泉, 客勝則大關節不利, 內爲痙強拘瘓, 外爲不便.”⁴⁾이라 하였고, 또 “諸痙項強, 皆屬於濕.”⁵⁾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內經』에 다양한 痙病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만, 痙病에 대한 전면적인 서술은 『金匱要略』에 처음 나온다. 『金匱要略』에서는 痙病의 병인으로 外感を 강조하였고, 아울러 誤汗 誤下 등에 의한 진액의 손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痙病의 분류에 있어서도 表實 表虛의 관점에서 剛痙 柔痙으로 구분하여, 剛痙은 갈근탕, 柔痙은 과루계지탕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승기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설

* 交信著者: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 730-0668, ybl@mail.sangji.ac.kr.

1) 楊思澍 等 主編, 『中醫臨床大全』, 중국,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43쪽.

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82, 423쪽.

3)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82, 429쪽.

4)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92, 1091쪽.

5)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92, 1111쪽.

명하고 있다.⁶⁾

그러나 『金匱要略』의 瘧病에 대한 서술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 번째는 剛瘧이 表實이므로, 그 증상에 惡寒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원문에는 ‘反惡寒’으로 되어 있어, ‘反’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점이다.

두 번째는 대승기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瘧病은 공통적으로 진액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대승기탕을 써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 번째, 暴腹脹大에 대하여 『醫宗金鑑』에서는 衍文이라 하였고, 『金匱要略講義』에서는 “其理未明, 當存疑”⁷⁾라 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瘧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清代 尤在涇이 저술한 『金匱要略心典』은 『金匱要略』의 중요한 주석서이다. 尤在涇은 張仲景의 학설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여 깨달은 바가 매우 많았는데, 주석할 때 그 요점을 얻기에 힘썼으므로 책명을 ‘心典’이라 하였다. 이 책은 원문의 정의를 명백히 논술하였고, 문체가 간단명료하면서도 조리가 있어 비교적 뛰어난 『金匱要略』주석서로서 인정받고 있다.⁸⁾

여기에서는 『金匱要略心典』의 瘧病조문을 번역하고, 주요 주석가들의 견해와 비교 고찰하여, 특히 위에 열거한 문제들에 유의하면서 尤在涇 주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原文] 2-1

太陽病, 發熱無汗, 反^①惡寒者, 名曰剛瘧^②; 太陽病, 發

熱汗出而不惡寒, 名曰柔瘧.

[校勘]

① 瘧: 趙開美本에서는 ‘瘧’字로 되어 있다. 아래의 문장도 이와 같다.

[注釋]

(1) 反: 『醫宗金鑑』에서는 ‘反’字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惡寒은 太陽病의 正證이지 反證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⁹⁾

[解釋]

太陽病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추워하는 것을 剛瘧(剛瘧)이라고 하며, 太陽病에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추워하는 것을 柔瘧(柔瘧)이라고 한다.

[注]

成氏曰: 『千金』云: 太陽中風, 重感寒濕則變瘧. 太陽病, 發熱無汗爲表實, 則不當惡寒, 今反惡寒者, 則太陽中風, 重感于寒, 爲瘧病也, 以其表實有寒, 故曰剛瘧; 太陽病, 發熱汗出爲表虛, 則當惡寒^①, 今不惡寒者, 風邪變熱, 外傷筋脈爲瘧病也, 以其表虛無寒, 故曰柔瘧. 然瘧者強也, 其病在筋, 故必兼有頸項強急, 頭熱足寒, 目赤頭搖, 口噤背反等證. 仲景不言者, 以瘧字該之也. 『活人書』亦云: 瘧證發熱惡寒與傷寒相似, 但其脈沈遲弦細, 而項背反張爲異耳.

[注釋]

① 惡寒: 『註解傷寒論』에는 이 뒤에 “其不惡寒者, 多陽明病, 今發熱, 汗出, 而不惡寒者, 非陽明證, 則是太陽中風, 重感于濕, 爲柔瘧也, 表虛感濕, 故曰柔瘧.”이 더 있다. 또한 앞의 ‘表實有寒’은 ‘表實感寒’으로 되어 있다.

[解釋]

成無己가 말하기를 “『千金』에서 ‘太陽中風에 寒濕을 재차 당하면 瘧病으로 변한다.’고 하였으니, 太陽病에서 發熱無汗은 表가 實한 것으로서 마땅히 惡寒하지 말아야 할 듯한데, 지금 오히려 惡寒하는 것은 太陽中風에 寒을 거듭 감촉하여 瘧病이 된 것이다. 表가 實한데 惡寒증상이 있기

6) 楊思澍 等 主編, 『中醫臨床大全』, 중국,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43쪽.

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3쪽.

8) 전통의학연구소 편, 『동양의학대사전』, 한국, 성보사, 2000, 299쪽.

9) 吳謙 等著,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464쪽.

때문에 剛瘕이라고 하는 것이다. 太陽病에서 發熱, 汗出하는 것은 表가 虛한 것으로서 惡寒증상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히려 惡寒하지 않는 것은 風邪가 熱로 변하여 밖으로 筋脈을 상하여 瘕를 일으키니, 表가 虛한데 惡寒증상이 없는 까닭에 柔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瘕는 뻣뻣하다는 뜻으로 그 병이 筋에 있으므로 頸項強急, 頭熱足寒, 目赤頭搖, 口噤背反 등의 증상을 겸한다. 仲景선생이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瘕字에 이러한 뜻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活人書』에서는 또한 “瘕證의 發熱惡寒은 傷寒病과 서로 비슷한데, 다만 그 맥이 沈遲弦細하면서 頸背反張하는 증상이 보이는 것이 그 다른 점일 뿐이다.”이라고 하였다.

[考察]

이 문장에서 尤在涇은 瘕病을 분류하면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지 않으면 表가 튼튼하여(實) 오한증상이 없을 것 같으나 오한증상이 있으면, 太陽中風에 寒을 거듭 감축한 것으로, 剛瘕이라고 하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 表가 허약하여 오한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오한증상이 없으면, 風邪가 열로 변하여 밖으로 筋脈을 손상한 것으로, 柔瘕이라고 하여, 원문의 ‘反惡寒’의 ‘反’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惡寒은 表實에 마땅히 있어야 할 증상이지만, 의학의 이치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보았을 때 表가 實하면, 얼핏 오슬오슬 추운 증상(惡寒)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므로, ‘反’자를 쓴 것이고, 尤在涇은 이러한 관점에서 ‘反’자를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瘕’의 의미에는 원래 뻣뻣하다는 뜻이 있고, 병소가 筋이기 때문에 頸項強急, 頭熱足寒, 目赤頭搖, 口噤背反 등의 증상이 비록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겸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瘕病이 傷寒과 비슷하나, 그 감별요점은 脈이 沈遲弦細하며 또한 項背反張의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본문의 ‘反’자에 대하여 吳謙은 表實에는 당연히 無汗하므로 瘕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¹⁰⁾ 이치상 그것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나 『金匱要略心典』에서는 成無己의 注를 利用하여 그대로 ‘反’자를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註解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法上第五』에 보면 成無己도 惡寒을 太陽表病의 提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風은 衛를 손상시켜 惡風하며 寒은 營을 손상시켜 惡寒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表實證에 惡寒의 증상이 없어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金匱要略心典』에서는 또한 成無己의 注를 인용하면서 剛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柔瘕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만 인용하고 뒤의 惡寒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風邪變熱’한 것이라고 별도의 注를 달고 있다. 成無己는 發熱汗出하면서 不惡寒하면 陽明病이고, 만약 陽明病이 아니라면 太陽中風의 상태에서 거듭 濕에 감축된 柔瘕이라고 하였다.

[原文] 2-2

太陽病, 發熱, 脈沉而細者, 名曰瘕, 爲難治.

[解釋]

太陽病에 열이 나면서 맥이 沈하고 細한 것을 瘕이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注]

太陽病本浮, 今反沉者, 風得濕而伏, 故爲瘕. 瘕病本緊弦, 今反細者, 陰氣適不足, 故難治.

[解釋]

太陽病은 원래 浮脈인데 지금 오히려 沉한 것은 風이 濕을 얻어 잠복하게 된 것이므로, 瘕病이 된다. 瘕病의 脈이 원래 緊弦한데 지금 도리어 細한 것은 陰氣가 마침 不足한 것이므로 難治라고 하였다.

[考察]

尤在涇은 瘕病의 脈이 沈한 것은 濕 때문이라고 하였고, 원래는 緊弦하여 힘이 있어야 하는데 細한 것은 陰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맥에 있어서 太陽病 發熱에서는 병이 표에 있

10) 蔡仁植 著, 『金匱要略精解』, 한국,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24쪽.

吳謙 等著,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464쪽.

기 때문에 맥이 마땅히 浮하여야 하겠지만, 痙病인 경우에는 沈遲하거나 혹은 弦緊한 有力한 맥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맥이 沈하면서 細한 것은 正氣가 부족한 것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난치라고 한 것이다. 사실 痙病만 이러한 것이 아니고 기타 질병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¹¹⁾

[原文] 2-3

太陽病，發汗太多，因致痙。夫風病下之則痙，復發汗，必拘急。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痙。

[解釋]

太陽病에 發汗함이 너무 심하면, 이로 인해 痙病이 된다. 무릇 風病에 설사를 시키면 痙病이 되는데 다시 땀을 내면 반드시 몸이 땅기게 된다. 부스럼이 본래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이 아픈 表證이 있어도 땀을 내지 못하는데 땀을 내면 痙病이 된다.

[注]

此原痙病之由，有此三者之異。其爲脫液傷津則一也。蓋病有太陽風寒不解，重感寒濕而成痙者；亦有亡血竭氣，損傷陰陽，而病變成痙者。經云：氣主煦之，血主濡之。又云：陽氣者，精者養神，柔則養筋。陰陽既衰，筋脈失其濡養，而強直不柔矣。此痙病標本虛實之異，不可不辨也。

[解釋]

이것은 痙病이 생기는 경로를 찾아보면, 이러한 세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津液이 손상되었다는 점에서는 똑 같다. 대개 太陽風寒이 解除되지 않고 寒濕을 거듭 당하여 痙病이 된 경우가 있으며, 또한 血과 氣가 소모되고 陰陽을 손상하여, 病이 변하여 痙病이 된 경우가 있다. 『內經』에서는 “氣는 따뜻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血은 윤택하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陽氣는 神을 기르면 정신이 맑아지고 筋을 기르면 몸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였다. 陰과 陽이 이미 衰弱해지고 筋脈이

그 적심과 보양을 잃었기에 뻣뻣해져 柔軟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痙病의 標本虛實을 구분하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考察]

尤在涇은 痙病의 발생경로에 太陽病 發汗過多와 風病下之, 瘡家汗出 등의 3가지가 있으나 津액부족은 공통적인 것이고, 원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太陽風寒에 寒濕을 거듭 감축한 경우와 血氣 陰陽이 손상하여 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風病은 원래 땀이 많아 쉽게 津액을 손상하며, … 瘡家は 피고름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음액이 잘 손상된다. … 이 3가지 痙病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剛痙 柔痙과 다르다. 剛痙 柔痙이 外邪의 침입으로 筋을 손상하여 생긴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한 3가지 것은 오치로 인한 속발성 병변이다. 外邪로 인한 것은 邪氣가 筋脈을 막아서 생기므로 外因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한 것은 津액이 筋을 영양하지 못하여 생기므로 內因성이라 할 수 있다. 또 瘡家の 경우에는 상처부위로 風邪가 침입하여 經絡으로 깊이 들어와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후세 학자들은 과상풍이라 하였다. 과상풍은 병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¹²⁾

[原文] 2-4

病者身熱足寒，頸項強急，惡寒，時頭熱，面赤，目赤，獨頭動搖，卒口噤，背反張者，痙病也。若發其汗者，寒濕相得，其表益虛，卽惡寒甚。發其汗已，其脈如蛇¹¹⁾。

[注釋]

(1) 發其汗已，其脈如蛇：若發其汗者로부터 6구절에 대하여 『醫宗金鑑』에서는 上文과 의미가 연속치 아니하고 아래구절의 ‘爲欲解。脈如故，反伏弦者，痙’이란 文句와 文義가 相屬함으로 아래구절로 分移함이 可하다 하였다.¹³⁾

1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2쪽.

13) 吳謙 等著, 『醫宗金鑑 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463쪽.

1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1-22쪽.

이 구절을 『醫宗金鑑』에서는 篇首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諸家以剛, 柔의 두 가지 瘧을 첫 구절로 삼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篇首로 삼는 것은 무릇 剛瘧과 柔瘧이 모두 이 구절로부터 갈라져 나가고 瘧病의 증상이 모두 이에 포괄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篇首로 삼는다.”라고 하였다.¹⁴⁾

[解釋]

병자가 몸에 열이 있는데 발은 차며, 頸項이 당기면서 뻣뻣하고 惡寒하고 때로 머리가 뜨겁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머리만 흔들고 갑자기 이를 악물고, 등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瘧病이다. 만일 땀을 내면 寒과 濕이 어울려서 表가 더욱 虛하여지므로 추워하는 것이 더욱 심해진다. 땀을 낸 후에는 그 맥이 뱀과 같이 나타난다.

[注]

瘧病不離乎表, 故身熱惡寒: 瘧爲風強病, 而筋脈受之, 故口噤, 頸項強, 背反張, 脈強直. 經云: 諸暴強直, 皆屬于風也. 頭熱足寒, 面目赤, 頭動搖者, 風爲陽邪, 其氣上行而又主動也. 寒濕相得者, 汗液之濕, 與外寒之氣相得不解, 而表氣以汗而益虛, 寒氣得濕而轉增, 則惡寒甚也. 其脈如蛇者, 脈伏而曲, 如蛇行也. 瘧脈本直, 汗之則風去而濕存, 故脈不直而曲也.

[解釋]

瘧病은 表를 떠나지 않으므로 身熱惡寒하고, 瘧은 風으로 뻣뻣해지는 병이 되어 筋脈이 이를 받으므로 口噤, 頸項強, 背反張, 脈強直의 증상이 나타난다. 『內經』에서 “諸暴強直, 皆屬于風也”라고 하였다. 머리는 덥고 발은 차며 얼굴과 눈이 빨갱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風이 陽邪이고 그기가 上行하며 또한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寒濕相得이라는 것은 땀의 濕氣와 外寒의 氣가 서로 합쳐져 풀리지 않은 것인데, 表의 氣가 땀으로 인하여 더욱 虛해지고 寒氣는 濕氣를 얻어 더 증가되어 惡寒이 심해지게 된다. 其脈如

蛇者라는 것은 脈이 伏하고 구불거리는 것이 마치 뱀이 움직이는 듯하다는 뜻이다. 瘧脈은 원래 直한데 땀이 나면 風은 사라지고 濕이 殘存하므로 脈이 곧지 않고 구불거리는 것이다.

[考察]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조문은 外邪로 인한 瘧病이 熱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외인으로 발생한 瘧病은 傷寒과 비슷하여 表에서 裏로 들어가는데, 사기가 表에 있을 때에 사기가 울체되어 열로 변화하여 筋을 손상하고 風을 動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身熱足寒은 사기가 울체되어 열로 변화되고, 陽氣가 위에서 울체되어 생긴 것이고, 時頭熱 面赤 目赤은 表證이 풀리지 않아 울체된 열이 이미 위로 올라간 것이다. 頸項強急과 獨頭動搖 卒口噤 背反脹 등은 사기의 열이 筋을 손상하고 건조하게 변화시켜 風을 動하게 한 것이다. 이 조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瘧病의 증후가 제일 상세하여 『醫宗金鑑』에서는 제일조문으로 순서를 바꾸었다.”¹⁵⁾

[原文] 2-5

暴腹脹大者¹¹⁾, 爲欲解. 脈如故, 反伏弦者, 瘧.

[注釋]

(1) 暴腹脹大: 『醫宗金鑑』에서는 ‘暴腹脹大者’는 衍文이라 하면서 위 구절의 校勘에 의하여 ‘若發其汗者’로부터 6구절을 이 구절에 삽입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解釋]

갑자기 배가 불러올라 커지는 것은 병이 풀려가는 것이다. 맥이 여전하다가 도리어 伏하고 弦한 것은 瘧病이다.

[注]

此即上文風去濕存之變證. 魏氏云: 風去不與濕相麗, 則濕邪無所衣著, 必順其下附之性, 而入腹作脹矣. 風寒外解, 而濕下行, 所以爲欲解也. 如是診

14) “諸家以剛, 柔二瘧, 列爲首條, 今以此爲第一條者, 蓋剛, 柔之辨, 俱從此分出. 瘧病之最備者, 宜冠諸首.” 吳謙等著, 『醫宗金鑑 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463쪽.

1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3쪽

16) 吳謙等著, 『醫宗金鑑 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466쪽

之, 其脈必浮而不沉, 緩而不弦矣. 乃其脈如故, 而反加伏弦, 知其邪內連太陰, 裏病轉增, 而表病不除, 乃瘕病諸證中之一變也.

[解釋]

이것은 위 문장에서 말한 風이 사라지고 濕이 殘存하여 생긴 變證이다. 魏氏는 “風이 제거되어 濕氣와 서로 들러붙을 수 없게 되면 濕邪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니, 반드시 그것이 아래로 부착하는 성질에 의하여 腹部로 들어가 腹脹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風寒이 밖에서 풀어지고 濕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맥을 짚어 보면 그 맥이 반드시 浮하고 沉하지 않고 緩하고 弦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맥이 여전하고 도리어 伏과 弦脈이 더 심해진다면, 그 邪氣가 안으로 太陰에 들어가 裏病이 더 중해지고 表病도 없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바로 瘕病의 여러 病證 중의 한 變證에 속한다.

[考察]

尤在涇은 暴腹脹大가 앞의 其脈如蛇와 같이 外邪가 풀어지고 濕이 잔존하여 인해 생긴 병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原文] 2-6

夫瘕脈按之緊如⁽¹⁾弦, 直上下行.

[注釋]

(1) 如: 而. 連詞

[解釋]

무릇 瘕病의 脈은 누르면 緊하고 弦하여 곧게 위 아래로 뻗어 있다.

[注]

緊如弦, 卽堅直之象. 李氏曰: 上下行者, 自寸至尺, 皆見緊直之脈也. 『脈經』亦云: 瘕病脈堅伏, 直上下行.

[解釋]

맥이 緊하고 弦하다는 것은 바로 단단하고 곧은 象이다. 李氏는 말하기를 “上下로 行하는 것은 寸脈으로부터 尺脈에까지 모두 緊하고 곧은 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脈經』에서도 또한 “瘕病의 脈은 堅伏하고 아래위로 곧게 행한다.”고 하였다.

[考察]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말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瘕病의 맥을 설명하고 있다. 瘕病이 筋脈이 強急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맥 또한 強直하고 弦勁한 맥상이 나온다. 直上下行은 寸關척이 다 強直하고 弦한 맥이 나온다는 뜻이다. 按之라는 두 글자로 볼 때 瘕病의 맥상은 弦勁有力할 뿐만 아니라 重按하여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虛寒으로 인한 弦脈과 구별되며, 沈緊한 뜻도 있어 太陽傷寒의 浮緊한 맥과도 구별된다.”¹⁷⁾

[原文] 2-7

瘕病有灸瘡, 難治.

[解釋]

瘕病에 뜸을 떠서 혈면 치료하기 어렵다.

[注]

有灸瘡者, 膿血久潰, 穴愈不閉. 婁^①全善云: 卽破傷風之意. 蓋陰傷不勝風熱, 陽傷而不任攻伐也. 故曰難治.

[校勘]

① 婁: 樓의 오자임.

[解釋]

灸瘡이 있는 자는 膿血이 오래되어 문드러져 穴愈가 닫히지 않는다. 樓全善은 “즉 破傷風의 뜻이다.”하고 하였다. 대개 陰이 상하여 風熱을 이기지 못하고 陽이 傷하여 攻伐을 당해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難治라고 하였다.

[考察]

瘕病이 먼저 생겼는가 灸瘡이 먼저 생겼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灸瘡이 있는 사람은 고름이 오래 흘렀을 것이므로, 진액과 혈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瘕

1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4쪽.

病이 생기면 반드시 血이 마르고 진액이 손상되어 차츰 風燥현상이 증가할 것이므로, 병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위중하다. … 瘧病이 먼저 생겼는가 灸瘡이 먼저 생겼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역대로 주가의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趙씨는 먼저 瘧病이 있고 나중에 灸瘡이 생겼다고 하였으며, 章씨는 먼저 灸瘡이 있고 나중에 사기를 감축하여 瘧病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 조문의 정신으로 보자면, 이 문장은 倒裝文法이므로, 章씨의 설이 따를 만하다.” 尤在涇도 灸瘡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原文] 2-8

太陽病，其證備，身體強，几几然，脈反沈遲，此爲瘧，栝樓桂枝湯主之。

[解釋]

太陽病의 證候가 모두 나타나면서 온몸이 뻣뻣하고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데, 맥은 오히려 沈遲하면 이것은 瘧病이니, 栝樓桂枝湯을 주로 쓴다.

[注]

太陽證備者，趙氏謂：太陽之脈，自足上行，循背至頭項，此其所過之部而爲之狀者，皆是其證是也。几几，背強連頸之貌。沉本瘧之脈，遲非內寒，乃津液少而營衛之行不利也。傷寒項背强几几，汗出惡風者，脈必浮數，爲邪風盛于表。此證身體强几几然，脈反沉遲者，爲風淫于外，而津傷于內，故用桂枝則同，而一加葛根以助其散，一加栝樓根兼滋其內，則不同也。

[解釋]

太陽證이 갖추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趙氏は “太陽의 脈은 足으로부터 上行하여 등을 따라 머리끝까지 이르는데 그 經絡이 지나는 곳에 나타나는 증상은 모두 太陽證에 속한다.”고 하였다. 几几는 등이 뻣뻣한 증상이 뒷목에까지 이르는 모습이다. 沉脈은 원래 瘧病의 脈이고, 遲脈은 內寒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津液이 적고 營衛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傷寒病에서 등과 목이 뻣뻣하고 汗出惡風하면 맥은

반드시 浮數하니, 風邪가 表에서 성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에서 몸이 强几几然하지만 脈이 오히려 沈遲한 것은 風이 밖에서 침입하고 津液이 안에서 상했기 때문이니, 桂枝를 사용하는 것은 같고, 한 쪽에서는(傷寒病) 葛根을 넣어 그 發散을 도와주고, 한쪽에서는(瘧病) 栝樓根을 加하여 겸하여 내부를 滋養하는 것이 다르다.

[考察]

이 구절은 風寒表虛로 인한 柔瘧에 대한 증상과 그 치료를 논술하고 있다. 尤在涇은 趙以德의 말을 인용하여 太陽經의 流注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모두 太陽病症狀이라고 하고, 지금 沈脈이 보이는 것은 瘧病이라고 하면서 傷寒에서 “太陽病，項背强几几，反汗出惡風者，桂枝加葛根湯主之.”라고 한 桂枝加葛根湯證과 이곳에서 사용하는 栝樓桂枝湯의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즉 傷寒病은 邪氣가 表에서 성하고 正氣가 아직 허하지 않기 때문에 桂枝湯에 葛根을 넣어 解肌舒筋하고, 이곳에서는 津液이 이미 상하였기 때문에 栝樓根을 加하여 滋陰시킨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증의 맥이 沈遲한 것은 허한증의 맥과 감별하여야 한다. 이 증에서는 沈遲하면서 弦緊하고 虛寒證에서는 沈遲無力하여 서로 다르다. …, 또 여기에서는 柔瘧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지탕으로 영위를 조화롭게 하고 태양 衛分의 사기를 풀어주며, 栝樓根으로 清熱生津하고 滋養筋脈하는 작용으로 볼 때 충분히 柔瘧에 대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柔瘧의 조문과 같이 연결하여 고찰하여 볼 때, 옛 학자들이 이 조문에 汗出의 증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분명한 근거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⁸⁾

[原文] 2-9

栝樓桂枝湯方

栝樓根二兩，桂枝三兩，芍藥三兩，甘草二兩，生薑三兩，大棗十二枚

1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4쪽.

上六味，以水九升，煮取三升，分溫三服，微汗。汗不出，食頃，吸熱粥發。

[解釋]

栝樓桂枝湯

栝樓根 2냥, 桂枝 3냥, 芍藥 3냥, 甘草 2냥, 生姜 3냥, 大棗 12알

위의 여섯 가지 약을 물 9되에 넣고 3되쯤 되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먹는데 약간 땀을 내야 한다. 만일 땀이 나지 않으면 30분 정도 있다가 땀은 죽을 뜨겁게 먹어 땀을 낸다.

[原文] 2-10

太陽病，無汗而小便反少，氣上衝胸，口噤不得語，欲作剛痙，葛根湯主之。

[解釋]

太陽病에 땀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의 양은 도리어 적고 기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이를 악물어 말을 못하는 것은 剛痙이 되려는 것이니, 葛根湯을 주로 쓴다.

[注]

無汗而小便反少者，風寒濕甚，與氣相持，不得外達，亦并不下行也。不外達，不下行，勢必逆而上沖，爲胸滿，爲口噤不得語，馴至面赤頭搖，項背強直，所不待言，故曰欲作剛痙。葛根湯，卽桂枝湯加麻黃，葛根，乃剛痙無汗者之正法也。按：痙病多在太陽，陽明之交，身體強，口噤不得語，皆其驗也。故加麻黃以發太陽之邪，加葛根兼疏陽明之經，而陽明外主肌肉，內主津液，用葛根者，所以通隧谷而逐風濕，加栝樓者，所以生津液而濡經脈也。

[解釋]

無汗한데 소변이 오히려 적은 것은 風寒濕이 심하여 氣와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밖에까지 이르지 않고 또한 下行하지도 않는 것이다. 밖으로 이르지도 않고 下行하지도 않으면 세력이 기필코 逆하여 위로 치밀게 되므로,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못하며, 차츰 얼굴이 상기되고 머리를 흔들며 등과 목이 뻣뻣하고 말을 기다리지 못할 바(증상을 파악하는데 말이 필요 없다는 뜻)에 이르니 그러므로 欲作剛痙이라고

하였다. 葛根湯은 바로 桂枝湯에 麻黃, 葛根을 넣은 것인데, 剛痙의 無汗한 것을 치료하는 올바른 치료방법이다. 생각건대 痙病은 대부분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전변될 때 생기는데, 몸과 팔 아래가 뻣뻣하고 입을 꼭 다물어 말을 할 수 없는 증상이 모두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麻黃을 넣어 太陽經에 들어간 사기를 發散시키고, 葛根을 넣어 곁하여 陽明經을 疏通시키는데 陽明은 밖으로 筋肉을 주관하고 안으로 津液을 주관하니, 葛根을 쓰는 것은 經絡을 통하게 하고 風濕을 내쫓기 때문이고, 栝樓를 넣는 것은 津液을 生成하고 經脈을 濡養하기 때문이다.

[考察]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땀이 나면 소변이 적고, 땀이 나지 않으면 소변이 많은데, 지금 땀이 없으면서 소변이 도리어 적은 것은 裏에 진액이 이미 손상된 것이다. 땀이 없다는 것은 사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소변이 적은 것은 사기가 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逆하여 上衝할 것이다. … 太陽痙病과 太陽傷寒은 비록 똑같이 표증이 있으나 痙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맥이 浮數하지 않고 弦遲하다. (2) 項背強急 (3) 津液不足 (4) 치법으로는 解表외에 진액도 살피야 한다.”

[原文] 2-11

葛根湯方

葛根四兩，麻黃三兩 去節，桂枝^① 甘草^② 芍藥各二兩^③，生薑三兩，大棗十二枚

上七味^④，以水一斗，先煮麻黃，葛根，減二升，去沫，內諸藥，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覆取微似汗，不須吸粥，余如桂枝湯法將息及禁忌。

[校勘]

① 桂枝: 趙開美本에는 ‘去皮’ 두 글자가 더 있다.

② 甘草: 趙開美本에는 ‘炙’字이 더 있다.

③ 二兩: 趙開美本에는 芍藥이 3냥으로 되어 있다.

④ 上七味: 趙開美本에는 ‘上七味’ 뒤에 ‘咬咀’ 두 글자가 있다.

[解釋]

葛根湯方

갈근 4냥, 마황 3냥 (마디를 버린 것), 계지 감초 작약 각각 2냥, 생강 3냥, 대추 12개.

위의 7가지 약 중에서 麻黃과 葛根을 물 1말에 먼저 넣고 달여 2되가 줄어들면 거품은 버리고, 나머지 약을 넣고 3되가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해서 1되씩 먹는데, 이불을 꼭 덮고 약간 땀이 날 듯해야 한다. 죽은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는 桂枝湯의 복용법에 따라 調攝과 금기를 지켜야 한다.

[原文] 2-12

瘧爲病, 胸滿, 口噤, 臥不着席, 脚攣急, 必斷齒, 可與大承氣湯.

[解釋]

瘧病的 증상이 가슴이 그득하고 이를 악물고 누워도 등이 다 자리에 닿지 않으며 다리가 뒤틀리면서 이를 갈게 되는데 大承氣湯을 쓸 수 있다.

[注]

此瘧病之屬陽明瘧熱者. 陽明之筋起于足, 結于跗; 其直者, 上結于髀. 陽明之脈, 入齒中, 挾口環唇; 其支者, 循喉嚨, 入缺盆, 下膈, 故爲是諸證. 然無燥實見證, 自宜滌熱而勿蕩實, 乃不用調胃而用大承氣者, 豈病深熱極, 非此不能治歟. 然曰可與, 則猶有斟酌之意, 用者慎之.

[解釋]

이 증상은 瘧病에서 陽明瘧熱에 속하는 것이다. 陽明의 筋은 발에서 시작하고 발등에서 뻗히며 그 곧은 것은 위로 髀에서 뻗힌다. 陽明의 脈은 이 속으로 들어와 입을 끼고 입술을 돌며, 그 줄거리는 목구멍을 따라 缺盆에 들어가서 橫膈으로 내려가므로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燥實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열을 씻어 내야 할 것이요, 實을 쓸어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어서는 안 된다. 이에 調胃承氣湯을 사용하지 않고 大承氣湯을 사용하

는 것이니, 어찌 병이 깊고 열이 극도에 이르러 이 처방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겠는가 (승기탕을 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겠는가)? 그러나 ‘可히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은즉 오히려 짐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쓰는 사람이 삼가야 한다.

[考察]

尤在涇은 이 증상을 陽明에 瘧熱이 있고 燥實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 大承氣湯을 쓰는 의미를 ‘燥實이 없으므로 調胃承氣湯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大承氣湯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만은 裏熱이 막혀 성한 것이고, 臥不着席은 背反脹이 심한 것이고, 斷齒는 口噤이 심하여 입을 꼭 다문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를 가는 것이다. … 글 중에 燥實의 증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대승기탕을 쓴 것은 뜻이 양명의 열을 내리려는 데에 있지 양명의 實을 下하려는 데에 있지 않으니, 泄熱存陰이 목적이러는 것을 알 수 있다.”

[原文] 2-13

大承氣湯方

大黃四兩 酒洗, 厚朴半斤^① 去皮, 枳實五枚 炙, 芒硝 三合

上四味, 以水一斗, 先煮枳, 朴, 取五升, 去滓, 內大黃 煮二升, 去滓, 內芒硝, 更上微火一兩沸, 分溫再服, 得下, 余勿服.

[校勘]

① 厚朴半斤: 趙開美本에는 ‘半斤’뒤에 ‘炙’字가 더 있다.

[解釋]

대승기탕

대황(술에 씻은 것) 4냥, 후박(구워서 껍질을 없앤 것) 8냥, 지실(구운 것) 5개 망초 3합.

위의 4가지 약 가운데서 먼저 물 1말에 후박과 지실을 넣고 5되가 줄게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대황을 넣고 2되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망초를 넣고 약한 불에 1-2번 끓여오르게

달여 2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설사가 나면 더 먹지 말아야 한다.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金匱要略心典』의 瘧病조문에 나타난 尤在涇 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瘧病의 원인은 외적으로는 太陽風寒에 寒濕을 거듭 감축한 것이고, 내적으로는 血氣陰陽이 손상된 것이며, 결국 津液不足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2. 瘧病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表證이지만 맥이 沈한 것은 濕 때문이라고 보았다.
3. 증상의 특징에 強直이 나타나는 것은 風 때문이라고 보았다.
4. 剛瘧의 증상에 惡寒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는, 成無己의 주에 근거하여 表가 實한 상태에서는 惡寒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원문에서 '反惡寒'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5. '其脈如故'와 '暴腹脹大'는 風이 제거되고 濕이 남아 생기는 병증이라고 보았다.
6. 瘧病의 陽明瘧熱에 대승기탕을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의미가 燥實을 제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陽明熱을 내리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대승기탕의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 楊思澍 等 主編, 『中醫臨床大全』, 중국,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92.
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5. 전통의학연구소 편, 『동양의학대사전』, 한국, 성보사, 2000.
6. 吳謙 等著,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2000.
7. 蔡仁植 著, 『金匱要略精解』, 한국,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